

때 아닌 도서관 자리 부족...알고 보니 노쇼족 때문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서울】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예약해놓고 실제로는 자리를 비워놓거나 반납을 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사례가 속출해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을 이용하려 했던 이현재(무역학 2018) 씨는 빈자리가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가능한 여석이 없어 의문이 생겼다. 이 씨는 “시스템 상에서는 좌석 예약이 꼭 차 있어도 막상 열람실에 가면 빈자리가 절반이 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노쇼 때문에 회전을 떨어뜨려 좌석 예약이 힘들어지고, 좌석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약을 하고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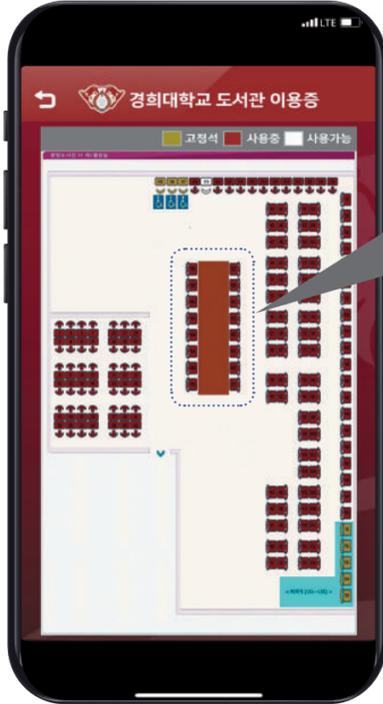
실제 지난달 28일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 예약 중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0시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전체 좌석 171석 중 예약된 좌석은 170석이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은 70명에 불과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예약된 171석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은 73명에 불과했다.

노쇼의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은 좌석 대여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수업을 듣는 등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유형이다. 도서관 이용자가 많아지는 오후에는 좌석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른 시간에 예약을 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예약이 가능한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리를 계속 독점하기 위해 전공 서적과 학용품을 비롯한 개인 물품들을 쌓아 놓는 이른바 ‘사석화’ 사례도 적지 않다.

도서관자치위원회 측은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석화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개인 물품 수거 및 한 달 간 이용제한 처리될 수 있다”는 쪽지를 남기는 등 예방책을 강구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 김지연(영어영문학 2016) 위원장은 “열람실 노쇼와 사석화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책꽂이나 판넬 등을 제작해 홍보했다”며 “SNS를 통해 여러 이벤트까지 진행해왔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열람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자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주형(철학 2015) 씨는 “공용 자원인 열람



모바일 좌석 발권 시스템에는 제1열람실 대부분이 사용중인 것으로 되어있지만 동시간대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모습이다.

“5월 말 출입 게이트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도서관 출입 현황과 발권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

실 좌석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불편을 떠안는 다른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시적인 권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좌석 발권 시스템상의 제재가 있어야 노쇼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열람실 시스템이 문제”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출입게이트와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연동해서 외출 후 1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반납처리를 하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고 3회 누적될 시 열람실을 1달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열람실 좌석은 한 번 예약으로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남은 대여 시간이 60분 미만일 때부터 다시 3시간 동안, 최대 8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외출 후 일정 시간 재입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제재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관 출입 게이트와 발권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도에 들어갈 때에는 출입 게이트에 학생증을 인식해야 하지만 나갈 때는 별다른 절차가 필

요하지 않다. 좌석 예약을 해두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장시간 좌석을 비워도 시스템은 이 사람의 퇴실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단 좌석을 예약하고 기니를 해결하러 가거나 수업을 들으러 가는 등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기에 도서관 좌석 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사용자에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도서관은 ‘모바일 도서관 이용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서관 출입, 도서대여, 좌석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좌석 예약과 ‘발권 확장’을 위해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좌석 예약을 하고 15분 안에 도서관 와이파이로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폰은 운영체제의 보안 정책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도서관의 IP주소를 파악하지 못한다. 때문에 도서관이 아닌 교내 와이파이존 어디에서나 발권 확장이 가능해 허위 예약이 더욱 용이해진다.

중앙대는 열람실을 원활히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중앙대 도서관은 입실뿐 아니라 퇴실 시에도 출입 게이트에 학생증을 인식해야 한다. 좌석 예약 20분 이내에 게이트를 통과해야 발권이 확정되며, 좌석 예약을 한 상태에서 퇴실한 뒤 90분 내로 도서관에 돌아오지 않으면 좌석은 자동 반납된다. 연세대 또한 시험기간에 한해 도서관 퇴실 후

140분이 지나면 예약한 좌석이 자동으로 반납되는 규정이 있다.

이용을 마쳤지만 반납을 하지 않는 것도 ‘예약된 빈자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1열 안 쓰시는 분 반납 부탁드립니다”, “집에 간 사람은 많지만 반납한 사람은 얼마 없다”며 좌석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좌석 반납을 의무화한 대학도 있다. 이화여대는 좌석 발권시간이 끝나기 전 예약 연장을 하거나 반납을 의무화했다. 학기당 좌석 3회 미만납 시 10일 간 좌석 발급을 중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대와 세종대 등 여러 대학이 좌석 반납 의무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은 반납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황일원 과장은 “강제 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5월 말 출입 게이트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도서관 출입 현황과 좌석 발권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4월 중간고사 기간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사용자들로 인한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 70 Initiatives(이니셔티브즈) 학생그룹 모집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사무국에서 경희 70 Initiatives(이니셔티브즈) 학생그룹을 모집합니다. 경희 70 이니셔티브즈는 본교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 홍보대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 그룹으로, 2019학년도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에 자원봉사 활동 및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개요

- 활동기간: 2019학년도 (2019년 4월 ~ 2020년 2월) (활동기간 1학기, 1년 중 선택가능)
- 활동내용

- 1)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 자원봉사
 - 경희 감사의 밤 및 문화공연(5월)
 - 70주년 기념식(5월)
 - 70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9월)
 - Magnolia 2019(12월)
 - 기타 70주년 관련 행사 발생 시 수시 봉사활동 진행
- 2) 개교 70주년 관련 홍보 프로젝트
 - 조별 프로젝트 수행, 각 조마다 자유 방식으로 경희대학교 70주년 홍보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1학기 당 1회)

• 혜택

- 1) 활동자 전원 단체복 지급(하계: T-Shirt, 동계: 점퍼)
- 2) 활동 시간만큼 봉사시간 인정(사회봉사 학점인정 가능)

- 3) 회의 및 봉사활동 등 소집 시 식사 제공
- 4) 활동증명서 발급
- 5) 개교 70주년 홍보과제 우수 인원(팀) 시상

• 지원자격

- 1) 경희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2) 최소 1개 학기 활동 가능한 학생
- ※ SNS 능통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활동 경험자 우대

■ 모집일정

- 지원기간: 2019년 3월 27일(수) ~ 4월 7일(일)
- 지원방법: 구글 폼을 통한 지원서 제출 (구글 폼은 하단 3가지 채널을 통해 접근 가능)
 - 1)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 70주년 공식 인스타그램(@khu_70th)
 - 3) 70주년 기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검색)
- 면접대상자 발표: 개별 통지
- 면접일자: 2019년 4월 중
- ※ 시간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 발표 시 공지
- 오리엔테이션 및 발족식: 2019년 4월 예정(추후 공지)

■ 문의

-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 김현수 담당 (본관 410호, 02-961-2370-2, 70th@khu.ac.kr)